

聖句

저희가 자기 갈로 땅
을 얻어차지함이 아니오
정히 팔이 저희를 구원
할도 아니오 오직 주의
오른 손이 하셨으니 조
개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다 시 44, 3

8月15日(金)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鎮榮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 允 台
主 筆 田 榮 澤

基督新報

KOREAN CHRISTIAN NEWS

光復節(解放紀念日)에際하여

三十六年 동안이나 일제의
사슬에 얽매어있는 한국 민
족이 역사적 해방을 받은
八、一일은 우리 민족이 당
위에 있는 날 동안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일본 사람들
은 자기네 죄의 보응으로
청천벽력같은 신판의 선언이
내린 날로 잊지 못할 것이겠
지마는 우리에게는 뜻밖에도
구원파 해방의 복된 소식은
전해주는 하늘의 소리가 울
려진 민족적 축복의 날이니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유

월절이 애급 사람에게서
장자의 금슬을 당하는 참후
한 저주의 날이었으나 하
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기
억하여 지킬 축복의 날이었
과 같다.

2

한국이 약하고 잠자고 있
을때에 먼저 깨인 이웃나라
일본은 백승에는 반도 침략
과 대륙 발전의 야심을 품
고도 길으로는 부패와 위기
에 있는 한국을 구하고 동
양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로
한국을 병합한 이래三十六

년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피를 빨리우고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박을 당하며
즐리고 놀리며 피정복자로
서의 갖은 수욕과 설움을
당한것은 아직도 우리의
억에 새롭다.

교육이라고는 간판뿐이오
식민지적 노예적 교육을 받
었고 모든 시설과 건설은
오직 자기네 식민지 경제정
책 본위로 한것이오 도로와
철도는 대륙발전의 다리와
준비로 한것에 지나지 못하고
가장 험악한 군사시설이오
헌병정치 경찰정치로 민족주
의자 애국자는 간접직접으로
압박하고 말살하기를 계획하

3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주
목과 압박을 받기는 우리가
독교 신자이었다. 이것은
애국의 불이 타는이들이 교
회로 물렸고 교회에서는 나
라를 위하여 열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것도 미웠거니와
미국선교사와 관계가 있고
결국 미국과 융한다는 혐의
로 그할하였는것이다.三一
운동시에 수원제암 교회의
학살사건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고 전쟁당시의 교회에
대한 무리한 압박과 혼란은
이로 형언할수없어 그 극한
에 이르렀는 것이다.



李承晚大統領

李承晚博士
二代大統領에再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독립국가 정부의 수반으로 치
임하여 국가재건 사업에 안파
래 역사적인 국난을 당하여

독일 월명의 푸르고 아름다운
은 골짜기에서 열린 제五회국
제선교회의회는 기독교회의 세
개선교에 관한 모임으로 독일
인의 전류자인 선의(善意)로
클로겐 월명의 동방 百마일
에 걸쳐 월명의 주민들이 신
근 곳으로써 각국 대표자들을
환영 하였다. 이 곳에 있는
루터교회는 상록수에 덮여
회에는 五十개국에서 모인

問題는内部的一致如何에左右

宣敎使命을再認識

이회의가 독일선교운동과
일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의회
를 가졌던것은 무례이아 할
인스탄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
의 환영광명에서 알수가 있었
고 담비대학에서 케넬 라트우
렐교수(회의대표중 한사람)에
게 학위를 준것으로 명백하였
다.

독일교회는 옷도! 디베리우스
감독과 나델나! 박사를 비
공식 회의에 보내며 쓰런발문
인상을 설명케 하였다.

능히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복잡한 정부와 반공전쟁
의 중대한 사명을 다하며 국
운을 유지해오는 중에 어느듯
四년의만기가 되어 二代 대
령을 선거한 결과 절대 다수
의 득표로 이박사가 재선 되
었다는것은 민족적으로 크게
치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이승만박사는 이십내외의 청
년시대로부터 도산 안창호, 서
재필씨와 같은 선각자요 애국
지사로서 더불어 기우려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볼려고 애를
쓰다가 형세가 불리하여 해외
에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七十평생을 조국광복사업에 바
쳐서 기거할때마다 독립운동
을 힘써 추진시켰고 기미년
후에 상해임시 정부에 대통령
으로 취임되었이나 해방이후에
귀국하여 독립운동을 하는중에
절대반공(絶對反共) 일색의 강

있었던 것이다.

五가 사슬아슬한 일이었다
 마르면 배만 가득고인온
 의 독한 칼에 한사람도
 없이 학살을 당하였을것
 하나님께서는 그칼이
 떨어지려는 순간에 그
 저서 빼앗으신것이다.
 하여 八一五는 한국기독
 으로서는 영원히 잊을수
 기념일이다.
 4
 一五는 조국광복의 기념
 오 우리 한국교회의 해
 범일일뿐아니라 전세주의
 제국주의의 최후로 몰락
 세이차대전이 종결을
 는 평화의 기념일이다.
 우리시신도파거리의 많은 회
 가 있었거마는 거기대한 회
 개가 없이 그날을 맞이하였
 기때문에 그리고 그 해방을
 남용하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시
 련을 당하고 있는것을 깨달
 고 이날에 하나님앞에 감사
 와 중회의 제사를 드려야될
 것이오 지금 새로운 복안중
 에있는 일본사람과 온 세계
 사람도 참으로하나님앞에 돌아
 와서 회개하는 날에야 세계
 에는 참된 평화가 올것이다
 이날에 우리 한국사람은 해
 밤의 감격을 추억하는 동시
 에 깊은 반성의 기회가 되
 기를 바라는바이다.

一、車費	東海道線岐阜驛까지往復車費의市電十六圓
一、申請	리대장人員을 일의 하겠으니 어니 敎會에서 認명이라고 申込을要望합니다。
一、修養會目的	우리信條確立
一、特別講師	韓國基督教博物館長 神戶改革派神學校長 韓國基督教聯合會(NCC)總務
修養會順序	金良善牧師 岡田穆牧師 金虎潭牧師
八月十六日	
開會禮拜	午後七時——八時
十九日廿一日	
清晨祈禱會	午前五時——六時
敬虔會	九時——九時二十分
神學講演	九時半——十一時二十分
神學講演	九時半——十一時二十分
廿二日	
清晨祈禱會	午前五時——六時
敬虔會	九時——九時二十分
神學講演	九時半——十一時二十分
閉會禮拜	九時半——十一時二十分
食會食親睦會	十二時——一時 解散
一九五二年八月五日	
在日本大韓基督教會總會會長吳允台	
同 夏期修養會準備委員一同	

一九五二年度總會夏期修養會

修養會順序		八月十六日	開會	禮拜	午後七時	——八時
清晨祈禱會		十九日——廿一日	敬虔	會	午前五時	——六時
神學講演		廿一日	神學	講演	九時半——九時	——九時二十分
敬虔祈禱會		廿二日	敬虔	會	九時半——九時	——九時二十分
神學講演		廿二日	神學	講演	九時半——九時	——九時二十分
開會禮拜		廿二日	開會	禮拜	九時半——九時	——九時二十分
餐食會食晚膳會		廿二日	餐食	會食晚膳會	九時半——九時	——九時二十分
一九五二年八月五日						
在日本大韓基督教會總會長吳允台						
同						
夏期修養會準備委員一同						

이런 소식은 전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 리는 이런 현실을 모른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독교보에 「전서 국민들의 사치」를 게재한 것을 보니 이런 때에도 일부 남자와 부녀들의 사치가 성행하고 장총리의 사치품까지는 별로 유평가 없다 하였으니 기매치는 일이다

★ 날이 가물고 먹을것이 없어 굶는놈만 굶고——하나님 의 게재는 얼뜨당두 많은 사 람이 받고 잘먹고 사치하는 놈은 그냥 잘먹고 사치하고 이계대배 웬일이냐?

★ 그래도 기독교인은 끝 까지 게재하고 사숙하자 심판을 받 을 놈이 받을 때도 오고야말 것이다.

川崎教會獻堂式舉行

總經費八十一萬六千餘圓

가와사키교회에서는 지난 三日(주일) 오후 三時에 헌당식을 거행 하였다.

헌당식에 배는 윤하영(尹河英) 목사의 사회하에 九十四장찬송으로 시작되었다. 심은택전도사의 기도 후, 임은후 오윤래당회장으로 부터 헌당식사가 있었다.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야로 헌신 노력한 김봉과 전도사는 복음의 씨 뿌리던때의 사실로부터 가꾸어 온 五년간의 역사를 보고하여 모인 회중으로 하여금 성전 건속에 마음을 집중케 하였고 재정면에서 담임선교구역 밖에서 모금에 노력한 자들의

도민회(女) 선교사는 「건축에 착수 하계된 동기는 主日학교 생도들의 열심있는 출석과 젊은 교사들의 꾸준한 복음전도의 열심을 본때에 이르렀다」고 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가와사키교회 발전에 관심을 더욱 북돋우었다.

박훈주 집사는 「二十七평에 아담하게 세워진 성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내의 신도들의 헌금에 의한 것인데 가나다장로회의 三十五萬八四五〇圓을 비롯하여 북장로선교부의 二十一萬五〇七〇圓과 해외신도 개인독자들의 十七萬四二五二圓의에



川崎教會獻堂式

教會의意義와實際

川崎教會獻堂式說教抄記

牧師 金良善

一、教會의意義-교회란 무엇인가
고전一二장에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였다. 에베소一2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一致)는 교회의 생명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에베소四3)교회는 그가운데 한 생명인 성령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이 온 교인들을 결합시키고 있기때문에 한 몸인 것이요, 결코 법률적의이로

서의 단체나, 혹은 율법적조직을 가진 한조직체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과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 이루어진 한 거룩한 몸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교회회를 새로 짓고 한가지로 모여 예배하며, 가라침을 받으며 서로사귀며, 봉사를 힘쓰는 이 모든일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능적행동(機能的行動)이며, 이 행동이 순조로 진행되므로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

교회가 될 것이다.

二、教會의實際-여러분은 힘과 땅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지어놓았다. 그리스도의 한지체가 가와사끼 일우에 그도 불쌍한 한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교회가 금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갖 기능을 발휘하기위하여는 다음 몇가지의 실제적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1) 생명성이 될 것!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발견함으로 부터 성장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주는 불은 그속에서 열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불 열성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이다. 그러므로

가급의 우물보다도 더 큰 샘은 사람, 죄로운사람, 죽은사람이 먹고 생명의 새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샘을 이곳에 판 것이다. 거친 사막에있는 오아시스 처럼 외롭고 거친 가와사끼 일우에 파놓은 생명샘물은 오래오래 막히지 않고 잘 흐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것!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예배의 참 뜻을 말씀하셨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 교회는 금후 영원토록 진정한 예배의 성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정성을 바치는 집회와 아울러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전도소(傳道所)가 될 것!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수를 얻

韓日人앞에方舟

總會常務 俞錫濬

재일본 대한기독교총회 상무 유석준장은 「우리총회 내에서 여러번 헌당식을 하는 가와사끼 일우에 그도 불쌍한 한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祭壇을民族우에祝福

貞洞教會牧師 金仁泳

옛날 이스라엘 민족 같이 가와사끼 일우에 예배하는 것은 성전이 건축 된다는 재일본한국동포우에 축복이 있을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크다란 회당이 많이 파괴되었으나 건축이 언제 될런지 모른다. 그동안 일본에서 이같이 건축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본교회의 불과 三十명 신자의 모은 돈 六萬三四〇〇圓과 주일학교 생도들의 열성의 헌금과 파자에서 얻은 五、七〇〇圓에 의해 받은 축복의 선물이 되었다.

김양선목사의 설교는 새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앞에 바친다는 의의를 분명히 하였고 더욱이 이날의 헌당식에는 한국 NCC총무 유호준목사와 감리회 김연영목사, 성결교회 장근옥목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것은 귀한일이였다.

三十여명의 축문 축사가 남동된후 아담스 북장로회선교사의 축도로 오후 다섯시에 헌당식이 마쳐졌다.



유호준 목사 김연영 목사

現代는宣敎의重

金。俞兩代表

恩惠의莫測

NCC總務 俞虎濬牧師

解放후 한반도를 돌아다니다 김치조국명이 그리워 귀국한 교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되었던 제五회 국제선교회의회에 참가하였던 한국 NCC 유호준 총무와 김연영목사는 지난 二일 도교하네다에 내렸다.

두분 목사는 七月五日 월요일에 도착하여 三주간에 걸친 협의회를 마치고 우리나라와

사파교회는 五千여명 교도부를 에 삼십이 원본 아니라 일본인들의 잘못된 한국인 인식에 새로운 중점을 이루려고 자를 마저 구하는 방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한인선사가 없었을 때 일본에
온다. 불과 七년에 二千여명
의 선사가 四十여개소에 대소의
성회를 세우고 모인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에서나 오늘
공정 시대에서 오늘
당시는 이성전에 인간적
이상의 축복이 임하기를
중의 합니다.

表 歸途에 言明

독사 이 국도양본(國土斷斷) 된
독일기 사회상을 상세히 서술
하리니 하겠으니 갑자기 여정
을 변경하게 되어 여러 지방은
못모았다 하며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형회회는 다섯 분과 위원회에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세계선
교에 대한 격의 없는 성의
가 전해 되었다. 선교교회와
피교교회회는 일치협력하여
당분까지 선교하자는 정에 도
달 하였다. 약간의 민족문제
도 있었으나 예규에나갈정신
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현
대는 선교종교의 날」이라는
문제가 강조되어 적극적인 선교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공산주
의 전내(共產主義圈內)와 협
조할 수 있으리라는 선은 단

자. 동리로 들어올자가 자
기의 체험한 사실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였다.

전도는 자기의 받은 은혜와 기
쁨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고
백하는 것이다. 신앙적 체험담
은 가장 힘있는 전도가 되는 것
이다.

(四) 절창조
자기 신앙의 표현은 마침내 다
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
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외인처
를 생명을 얻은 여러분의
기쁨을 온동리에 전하시기다.

(5) 사랑의 봉사
4) 사랑의 봉사와 거룩한 교제
소가 될 것.

「예수가 라사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니라」 하신 말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된의 양식인 동시에

절하고 공산주의 지역에도 전
도하자는 결론을 지었다. 또
한가지는 평신도 지도문제였
는데 앞으로 조직적인 활동
에 주목할바 있을 것이다.

勉青修養會開催

現 實 當 面 問 題 討 議

재일본 대한기독교 청년회
회연합회에서는 오는 十八일부터
三日간 미와코(美和)에서
하기수양회를 개최한다.

동 연합회는 재일본 하기수양
회에서 재일본 한국기독교청년들
의 신앙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
는바 금년에는 더욱히 조국이
지루한 전란속에서 심을함을
올라루 인식하고 기독교정신으로
서서의 「立場」을 선명히 하여
재일본의 임무를 깨닫게 하
고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어와 「현대기독교청년의 입장」
이라는 주제(主題)하에서 전
지한 논의가 전개될것이라한다

明明한一致는 成果多大
小倉教會 夏期學校

서남지방 교구(小倉)교회
에서는 지난 七月三十일부터八
月二일까지 四일간 하기아동성
경학교를 개최 하였다.

현해한 건너편 조국땅에서는
포연이 하늘을 덮고 일본각지
에서는 이민족(異民族)우에
명망치 않은 소식만 전해지대
미래의 건설자 어린이들은 「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각각 자기의 맡은 소
임에 충실하는 것이니, 육사는
가르치는일에 장로는 다스리는
일에, 직사는 불쌍한과부와 고
아와 가난한이와 병자를 위로
하며 도와주는일에 교인들은
서로 위로하며 도와주며 교회
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일에 각
각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자는
한지체입니다. 결코 상하나 귀
천이 없습니다. 어느한곳이 아
주면 전체가 아프고 어느한곳
이 기쁘면 전체가 즐거웁게입
니다. 여러분들은 금후 한교회
의 교우를 간에서만 함께
나라 전 세계 신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수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가지
시기를 위하여 애지중애는 하이다.

은 사람이 되자」는 주제로써
성경을 배우고 노력로 하나
를 찬송하며 영성도들의 이야
기를 들며 명망한 생활훈을
하였다한다. 교회는 장로 집사
들이 일치하여 전일교사들을
도움으로 예상이상의 좋은 성
과를 거두었다한다.



日本信徒들의 誠心

難民信徒救濟品出荷
일본 NCC에 조직된 한
피난민구제위원회에서는 금번에
한국 구제품 제2차 수송을
수송중이라 한다.

이 구제위원회의는 작년 크리
스마스에 조직된것으로 일본전
국 기독교기관에 구제운동을
전개한바 제1차는 지난一月말
에 추력삼대를 한국피난민에
게 보내었는데 한국정부 사회
부에서는 이에 감사장을 보내
어왔다하며 다시 구제금품모집
을 계속하여 불원에 발송할
것이라한다.

지금까지 모은 구제품의내용
은 한국 NCC의 희망에 따라
준비된것인데 교역자미망인회
(미망회)에 재봉기 五대 교
역자들을 위하여 성경주해서
四〇〇책 연필四万本, 면소레담五
千개, 보육연필학용품, 주일학교
생도용책三万冊分인데 이것이
추력 삼대가량이라한다. 연재나
수송운제로 지연되던바 이번
은 인라1차1취मित순서1비스
의 협력으로 수송이 속할것으
로 보인다.

關西地方雄辯大會盛況
관서지방회(關西地方會)에서
는 지난 七月二十五日 오후七
시반 무교1가와교회당에서
「목음전도에 대한 기독교청년의
사명」이라는주제하에 흥변대회
를 개최 하였다.

변사는 각 교회에서 참가하
였는데 최정수목사의 사회하에
진행된 청년들의 열렬한 흥변
에는 감명도 깊었다한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一等 윤종은(신호)
二等 이용환(서성)
三等 김진옥(서성)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각각 자기의 맡은 소
임에 충실하는 것이니, 육사는
가르치는일에 장로는 다스리는
일에, 직사는 불쌍한과부와 고
아와 가난한이와 병자를 위로
하며 도와주는일에 교인들은
서로 위로하며 도와주며 교회
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일에 각
각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자는
한지체입니다. 결코 상하나 귀
천이 없습니다. 어느한곳이 아
주면 전체가 아프고 어느한곳
이 기쁘면 전체가 즐거웁게입
니다. 여러분들은 금후 한교회
의 교우를 간에서만 함께
나라 전 세계 신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수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가지
시기를 위하여 애지중애는 하이다.

賀 展 報 申 督 基 祝

在日本大韓基督教

大阪西成教會

大阪市西成區梅通五十二

牧師 金元治

執事 金正基 李成丙 高貴任 李得禮 黃得浩 金珠浩

西成教會婦人傳道會 勉勵青年會

大韓基督教大學神學部

韓國學生會

李金 蔭美 姜文 容永 得文 完哲 寶博

水飴製造卸

湊水飴製造株式會社

堺市西湊町三ノ一二五 電話 堺九九四番

西成教會

執事 金正三

解放日の感激

各界名士之所感

一九四五년 八月十五일은 우리의 그 동안 당한 압박과 고난이 너머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전쟁 동안에 지극히 근한 탄압과 교섭을 겪었기 때문에 삼천만 민중이 사모친 설음으로 이날이 오기를 하글을 당하여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날의 감격은 전민속을 운하여 촉발된 일이지 마는 또 동시에 우리들 하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독발된 기쁨의 기쁨이오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중대사건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교회로 민족적으로 뜻깊은 일도 보아서 이제 몇분의 그날에 당한 감격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지인)

울것을 알고, 선전에 있는 나

암굴에서瞑想

金良善 牧師

八、一五해방 二년전에 합구령을 당한 나는 시무하던 교회를 사면하고 十여년간 심혈을 기울려 수집한 중요 사료와 문과재를 가지고 평안북도 기성(龜城) 전마산(天摩山) 속으로 들어가 버렸던것임으로, 해방의 기쁨을 인가에서 떠나 땀어저있는 산속에서 지하였다. 읍내에 있는나의 친구 그날로 사전차를 타고 달려와 알려주었음으로, 十五일 저녁에 이 기쁜소식에 접할수 있었다. 아무리 산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패망이 한두달안에 있다는것을 확신한 나는, 패망직전의 발악이 크게 무서



의 선배의 면서도 의우(義友)인 혁명렬 목사와, 정주 선우(正州)인 홍창로에게, 내가 있는 천마산 속의 글을 붙이고 그 속에서 최후 고비를 지나자고 제안하였었다. 그러나 그때 서당이 아주 절제한 상태이었음으로, 필경 세사람이 각기 숨어있기로 결정하고 선우분께서는 자기 집 전정위에 숨을 자리를만을 있고 그리로 나는 처음 계획대로 천마산속 뒷숙의 들이가 글을 파헤쳐보았었다. 이날도 나는 패랭이를 쓰고 삼복에도 나리 안팎의 함계 글을 파헤치고

한 속으로 돌아가다가, 멀리서 온을 취우루에(일촌은하의) 소(一)하고 모함치며, 자전자를 타고 달리는 천구를 만나게 되었다. 공인자, 성시언자, 불할수조차있었다. 천구의 전하(大)한 보고를 들은 나는 무도(無道)하고 격렬한, 신장(新張)을 일으키어 쓰러져버렸

十六日, 수만(數萬)면(一面)을 모으고 신사의 불사루에, 화산불장이 쌓여오르는 성천(聖天) 기쁨과 감격을 애국가와 만로(萬路)아우성치(友成)치, 나의 심신상(心身相)의 해(海)인만큼 그때 깨달았다.

그러나 문학문학, 철학철학



學習の方法 (5)

魯安理

九 한습이 경험을 중하여
실험된다는것을 이상 실험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한가지 문제를 온전히 배우
기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인가 하
는것도 간파할수 없은 문제의
하나이다. 연구는 습관, 말, 해
석등을 쉬 배우게하는 것이다.
어떤 연령층에서도 책 혹은
유식자에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
한 것이다. 자기가 존귀하게 여
기는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하
는일이 제일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다. 묘사는 이러한

여러가지 학습 조건이 자기의
교실에 잘 구비되어 있는지 없
는지를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학습을 당하
여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들이
인데 여기에는 또한 일정한
중심원리가 통하고 있다.
A 일정한 목적에 도달하려는
내면적 열망이 이것이 학습을
추진시키는 힘이다.

B 학습은 사상 관찰 행실
 실천할것없이 모두다 경험할
 듯하여 오는것이다. 어떤 지식
 을 붙들고 그것이 종설이아

니고 참으로 그 사람 자신과
지식이 될려면 그 지식은 경
험이라는 도가니(坩堝)를 한
번 거쳐야만 되는 것이다.

C 실험이 착실할수록 그
 과의 확실성도 더하여지는 것이
 다. 우리가 절실한 감정과 시
 종일과한 주의를 가지고 들으면
 이야기나 사실은 듣고 볼 때
 러버리는 것과 달라서 분명한
 우리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D 환경의 영향이 매우 큰 것
 이다. 우리의 주의심을 집중케
 하고 또 유쾌한 느낌을 주는
 것은 모두다 학습을 도와준다
 E 연구자료(研究資料)나 조
 사하려는 사실은 언제든지 필
 요할때에 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숙한 학생에게
 더욱 그렇다. 사전(辭典)이

결에 없는 까닭에 결방까지 가
기 귀찮아서 부정확히 이해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경험은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
사는 미리부터 필요한 서적을
생각해 두며 그것을 가까이
준비해 놓기를 잊지 말아야 한
다. 그리고 한편 기회 있는대
로 학생 자신이 천히 실지를
보게 하는 동시에 지식 있는 이
들을 찾아가서 묻고 상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개인적 차이
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각
자의 개성(個性)을 모르면서
는 각자의 필요가 그 일생애
활동에 유익을 줄수 있는 교학을
하기 어렵다. 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의 희망, 그의
문제, 필요 등이 물론 이것이다.



祖國訪問記 (3)

金在和

나는 어느듯 여행자라는 의식을 잊어 버리게 되어 감니다. 처음 갔을 때에는 마음에 괴로움도 없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면 동양에 내 마음은 도저히 아니 당연하다싶이 조국 현실에 애착심이 이러 남니다. 애착심의 조국내의 모습을 알지 못하나 전란속에서 살아가는 면서도 팔기 있는 이 내 민중의 정신은 일본에 부러운바 없읍니다. 물론 경제면과 문화면은 어쩔하고 융화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님니다마는 이러한 약조건, 약조건이라기 보다 역경에서 남보다 생명의 힘이 상상이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현대의 기사와 이적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뜻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님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교포 생활을 우리는 알수 있으나 본국에 사는 시민 생활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주(衣食住)문제를 해결하는가 염려스러우나 궁중의 죽었다는 말은 전연 없읍니다. 일본인들이 패전 직후 어떠한가 하는 우리가 잘 알지 마는 우리 동포들 중에는 그런 실심 낙담한 모습은 하나 볼수 없고 젊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

그것은 四千年의사에 있는것도 아니요 동방의지국이 라는데 있는것도 아니요 밝은지 七十年도아니되는 기독교의 부흥의 해에 있다고 봅니다. 임국후 첫 주일을 부산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나는 그날 놀랐습니다. 날마다 성찬을 드물리면서요 교회에 초만 원이요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현실에 실망하고 찾은 것이 궁상한 것은 아니요 이 루은것은 무서운 자멸이 아니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중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백성의 열렬의 아니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같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알을들면이 됩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언제 한지 모르지만 三十년째 소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것 같이 피난지에서도 부산에는 수많은 교회당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당이있으나 회당이 다 집회에는 차고 넘치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관란을 통하여 우리민족을 전부 구속하시려는것 같습니다. 그러 유감스러운 일도 기독교인 에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도종의 책임자들은 참다운 예언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게만 하지 말고 아난것은 아니라고 하는 정의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

조국에바치는 노래

詩

상 바라보라 저 산과 바다, 저 하늘과 별관, 내 역사와 전설이 피었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 온 곳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지 너밖에 또 뉘게주랴? ★

네게서 내 뼈와 살 받고 그리고 내 생명 길러, 내 누구 위하 이 삶과 뼈 던져 바치리?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지 너밖에 또 뉘게주랴? ★

악마의손발 아래 너는 지금 짓밟히는데 버리고 어이 가랴? 같이 안고 내 목숨 바치리라 슬프다, 너 같이 ★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지 너밖에 또 뉘게주랴? ★

내가 피로울 때 내 영광, 내 행복 어디있나? 내가 없다면 구구한 내 일생 무엇하리?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지 너밖에 또 뉘게주랴? ★

남은 비록 차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그대로 네 속에 사라지리니,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지 너밖에 또 뉘게주랴? ★

기구한 운명 그러나, 너는 피로써 불려, 조국아, 오지 너 ★

나는 생과 사를 막을 힘이 없어, 조국아, 오지 너 ★

해마다 연고민의 비 너로 인하 된 가락이 조국아 ★

強制勞働 (奴隸勞働)

J. E. F

불의로 그 짐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삶을 주지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一九五〇년 여름에 서울의 공산군에게 침략을 당하였을 때 탈출한 한국인 박영현씨의 최근의 보고로 인하여, 우리는 쓰련과 공산주의 지역 각지에 있는 강제노동 노예노동을 다시 생각케된다. 그는 "코레아"지 정월호에서 그가 북한에서 두달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자세히 말한

바가있다. 그 수용소가 더럽고 비위생적인것은 실로 문명국민의 믿을수 없고 상상이상이라 하였다.

박씨와 세 친구는 유엔군이 인천과 서울을 탈환한 후에, 북한으로 전격할 때에 다행이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행이 살아서 북한에 사실로있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나 공산주의와는 분리될수 없는 것이었다.

그해 八월에 박씨는 다른 수백명 단체와 같이 평북 개천으로 끌려갔다. 그때에 청년들은 군대에 나가고 학자들을 특수한 기술자들은 자제에게서 못쓰게하고 공산당에서 쓰기 위하여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는 나갈수없고 특수한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은 "반동분자"로 취급하여 강제노동자 수용소로 보냈다. 박씨는 이들과운데 부들러들이 가게되었다.

이 강제노동부대 소위 보국대는 어떤 기초공사를 위하여 땅을 파게 되었는데 박씨는 전에 써보지도 못한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날마다 장 시간의 노동을 하게되었다. 이렇게 일하는사람중에는 영양불량으로 각기 병에 걸리고 그대도 약도 얻어먹지 못하고 육과 채

재에 못쓰다어 일을 계속한다 박씨가 두달동안 이 수용소에 있을동안에 한번도 웃도 같아 있지 못하고 목욕도 못하였다. 박씨와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온몸에 이가 뛰었고 그 때문에 밤에도 별로잠을 자지 못하였다. 세사람이나 네사람씩 반쯤지이 일을 하는데 식사때나 잘때나 변소에갈때나 조공도 빠져나오지는 못하였다. 그 수용소에서는 말을 못하게하고 등불이 없으므로 어두운데서 침묵하고 앉아있을수 밖에없다 박씨는 말하기를 그때에 자기는 마음대로 면칠수있는 거지가 부러웠다한다. 그는 두달동안 무전교생을 한뒤에, 十월에 그 수용소에서 탈출하였

